

B대학생들의 미(美) 인식과 융합교육과의 관련성 연구

홍진철

백석대학교 기독교학부

Relevant study of convergence education and beauty awareness of B University students

Hong Jin Cheul

Division of Christian Studies, Baekseok University, South Korea

요약 아름다움(美, Beauty)은 시대와 지역, 그리고 문화와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해석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인간의 아름다움과 대학 캠퍼스 환경의 아름다움, 그리고 이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과 융합교육과의 관련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본 논문은 B대학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름다움 인식에 관한 설문자료를 토대로 연구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인간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캠퍼스 환경의 아름다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나아가 학생들의 아름다움 인식과 융합교육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전공교육과 미학의 융합교육의 관련성이나, 인성교육과 미학의 융합교육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자료에서 학생들은 인간에 대한 통합적 아름다움이라는 인식과 외면적 아름다움보다는 내면적 아름다움을 더 우선하는 인식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 캠퍼스 환경의 아름다움도 대학 구성원들의 아름다움이 중요하고, 교수와 직원들의 설립이념에 적합한 개별 인성과 전공역량도 중요하며, 감성세대에 적합한 감성 교육과 행정 지원도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대학 프로그램의 아름다움 인식도 이것을 경험한 학생들의 인성과 전공역량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대학 프로그램의 융합적 아름다움 교육도 중요함을 인지할 수 있었다.

• 주제어 : 아름다움, 융합교육, 인성교육, 미학, 이미지

Abstract According to the era, area, culture, and scholars, the beauty has been variously interpreted. This paper is analyzed about human beauty, the university environment beauty, and the relevance of awareness about beauty and convergence education. Especially this paper is researched on the basis of the survey data for the B University students. Also in this paper, we considered that what is beauty, whether and how to recognize human beauty, which was investigated whether the beauty of the campus environment. Furthermore, we discussed about relevance of beauty and convergence education. We describes relevance of major education and aesthetics, and relevance of characteristics education. In this survey, it can be seen that these students have awareness of holistic human beauty and that inner beauty rather than outer beauty is more preferentially. The beauty of university environment is important to know university member's beauty, and individual character and major competencies of faculties and staffs suited to establishment ideology of the university, and the emotional education and administration suited to the emotional generations. Because beauty awareness of university programs appear through the students' character and major competence, it was recognized that the convergence beauty education of university program is properly carried out is important.

• Key Words : beauty, convergence education, character education, aesthetics, image

1. 서론

*Beauty*와 *beautiful*은 명사와 형용사로서, 전자는 아름다움(美)의 추상적 특질을 의미하는 것이고, 후자는 어떤 특정한 아름다운 사물(예, 아름다운 남자, 아름다운 여자, 아름다운 인간, 아름다운 캠퍼스 등)을 지칭하는 데 사용된다. 그리고 이러한 두 단어의 관계는 고대 그리스인들이 아름다움을 표현했던 *κάλλος*와 *καλόν*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먼저 사용되어 왔다. 특히 *το καλόν*은 이후 로마의 라틴어 *pulchrum*, *bonellum*으로 사용되었고, 오늘날에는 스페인어 *bello*, 프랑스어 *beau*, 영어 *beautiful*, 독일어 *schön*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1] 이러한 *beauty*와 *beautiful*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표현되는 아름다움은 시대마다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는데, 그것은 균제, 대칭, 조화 등의 수적인 비례에 의해서 표현되는 것이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피타고라스의 견해로부터 시작해서, 내용으로서의 아름다움, 형식으로서의 아름다움, 특정 목적에 적합한 아름다움(또는 장식미, 부용미), 주관과 객관의 관계에서 성립된다는 취미론 등의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2]

한편 개별 나름의 주관적으로 사용되어온 아름다움의 개념이 B대학의 재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로 인식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본고에서는 ‘인간의 아름다움’과 ‘캠퍼스의 아름다움’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접근해보고자 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추상적인 아름다움이라는 개념을 구체화된 대상(인간, 캠퍼스)을 통해서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특히 뉴미디어세대인 학생들이 공감각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공감각을 이루는 주요한 감각중 하나인 시각이 아름다움과 추함에 아주 민감하기에, 대학생들의 인성교육과 전공교육에도 이러한 아름다움의 측면들이 기여하는 바가 아주 크다는 점을 대학생들의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과 융합교육의 관련성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본고에서 융합교육을 논할 때 미(美)적 심성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한 논지다. 우리가 제품을 개발하거나 관련 산업을 발전시킬 때, 현 시대는 미적 심성을 지닌 인성이나 가치관을 소유한 융합형 인재를 무엇보다 요청한다. 이러한 이유는 우리가 올바른 미적 심성을 지닌 제품 개발자로부터 사회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제품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융합교육과 융합산업 발전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 다루는 미적 심성이 함양된 인재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아름다움

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연구 분석하였다.

이러한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이어서 B대학생들의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을 고려할 때 아름다움의 개념을 서술하고, B대학생들의 설문조사내용에 대한 자료(2015년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인간의 아름다움에 대해 다루고, 이어서 캠퍼스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 후 B대학생들의 아름다움 인식과 융합교육의 관련성에 대해서 접근해보고자 한다. 특히 이것은 아름다움 개념의 융합교육 관련성, 인간의 아름다움과 연계된 인성교육과 미학의 융합교육의 관련성, 캠퍼스의 아름다움과 연계된 전공교육과 미학의 융합교육의 관련성에 관한 것들이다.

특히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2015년 B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연구(B대학 교과제자료)를 자료로 활용하고, 이에 대한 분석과 함께 다양한 이론적 접근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어서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선행연구 분석을, 3장에서는 B대학생들의 아름다움 인식에 대해, 그리고 4장에서는 아름다움 인식과 융합교육의 관련성을, 마지막 5장에서 결론을 맺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분석

인간의 아름다움(외모·성격·관계성)과 관련된 선행 연구는 연구자의 전공과 관련해서 참으로 다양하다. 이 가운데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아름다움 개념과 관련된 연구를 한 학자로는 조지훈(1964)의 아름다움에 대한 한국적 용어인 ‘아름다움’, ‘고음’, ‘멋’과 민주식(1994)이 덧붙인 ‘예쁨’이라는 4개의 단어를 중심으로 대학생의 아름다움 개념을 비교분석한 김은정·박상준(2008)[3]이 있고, 선(線)의 아름다움·풍류·신명·흥취 등의 용어로 표현된 한국적 아름다움의식의 다양성과 유형별 분류에 대한 연구를 한 이주영(2010)[4]이 있으며, 20·30대 여성의 아름다움 인식에 대한 근거 이론적 접근을 한 김선우·이유리(2012), 여대생의 외모향상추구행동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정희영(2011), 여대생의 신체와 외모관리 행동 및 심리사회적 건강과의 연관성을 연구한 이인숙·양윤미(2015)[5], 미용전공 학생들의 성격유형별 외모만족도에 대해 연구한 고경숙(2012), 20·30대 남성들의 사회심리적 의식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김혜균·박명희(2014) 등이 있고, 융복합시대의 대학생

들이 지닌 관계미의 측면에서 볼 수 있는 인간애·이타적 행동 등의 관계에 대해 연구한 장영희·김경자·이재신(2015)[6], 여대생들의 외모 특히 메이크업 인식 유형에 대한 관심도를 연구한 홍수경·김민경(2015)[7], 대학생들의 인성교육 교재연구를 한 김지원(2015)[8]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 외에, 아름다움과 관련된 미학과 다른 학문영역 사이의 융합교육에 대한 연구도 전공별로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 가운데 유아교육과 미학교육의 연계성에 대한 연구를 실행한 정진성·임부연·전은경(2014)이 있고, 음악교육에서의 미학적 사고의 중요성을 다루면서 구체적으로 바그너의 오페라 미학과 융합 교육적 성격을 연구한 신동의(2013), 대학 융합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탐색한 허영주(2013), 인문학 특히 유가사상(공자)과 미학 사이의 융합과 관련된 연구를 한 장완석(2014), 교육학적인 측면에서 다음세대를 위한 미학교육의 융합적 중요성을 연구한 소태영(2014), 미술과 과학의 융복합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한 이정아(2014), 이미영·황향숙(2012), 서울이(2014) 등이 있다.

물론 이런 연구들이 나름대로 그 의의를 지니지만, 인간의 아름다움을 다룰 때, 내면의 아름다움과 외모의 아름다움이라는 2가지 범주를 중심으로 다루거나 외모의 아름다움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고, 아름다움과 관련된 융합교육을 다룸에 있어서도 교육의 대상인 학생들 자신(인간)과 교육의 장(場, 교육환경)인 대학 환경의 아름다움(시설, 직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이뤄지는 전인교육의 측면이 배제되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B대학생들의 인간에 대한 통합적 아름다움 인식과 대학환경의 아름다움이 포함되는 융합 교육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3. B대학생들의 아름다움 인식

3.1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아름다움의 개념에는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는 데, 자연미와 예술미, 음악미와 시각예술의 미, 구체적 형태의 미와 추상적 형식의 미, 정묘(subtlety), 우미(grace), 고상미(elegance), 어떤 사물을 충족시키는 임무에 대한 적합성(aptness), 장식미(decoration), 매력미(comeliness), 숭고미(sublimity), 고전미, 낭만미 등으로 다양하다.[1] 이러한 서양적 아름다움 개념은 플라톤의 견해[1]처럼

도덕적 아름다움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아름다움 개념에서 소피스트·아리스토텔레스학과·스토아학과 이후의 심미적인 아름다움 개념으로 좁아졌으며, 이후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과 데카르트에게서는 시각적 아름다움 개념으로 축소되었고, 18세기에는 숭고도 아름다움에서 분리되었다.[1]

이어서 이런 아름다움 개념은 자연세계의 완전함과 아름다움에 대한 경탄(고대 그리스의 아름다움 개념, 세계의 아름다움 개념)에서 나온 자연의 아름다움과 예술적 아름다움이라는 이원적 아름다움 개념이 있으며, 이것도 20세기 이후에는 예술중심의 아름다움 개념만 남게 되었다.[1] 게다가 이런 아름다움 개념도 객관적 아름다움 개념에서 18세기 이후 대다수의 미학자들이 취하는 주관주의적 입장이 되었다.

3.2 인간의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

인간은 역사 속에서 다양하게 해석되어 왔는데, 플라톤은 인간을 육체와 영혼의 결합이라고 보았으며, 영혼은 불멸하며 참된 인간이지만 육체는 그림자라고 보았고, 또 영혼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육체 안에 감금되어 있다고 여겼다.[9] 이러한 플라톤의 견해와는 반대로 유물론적 신경과학자들은 영혼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물리적 세계만이 유일한 실체라고 여기면서, 인간의 사고·감정·정신·의지 등을 비롯한 모든 것을 물질과 물리적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여긴다.[10]

이런 다양한 인간이해 속에서, '미학적 인간, 호모 에스테티쿠스(*Home Aestheticus*)'[10]는 도구적 인간(*Homo Faber*)·직립인간(*Home erectus*)·유희의 인간(*Home Ludens*)·지혜로운 인간(*Home Sapiens*) 등과 같이 인간에 대한 새로운 측면의 해석 가운데 하나다.

이와 같이 인간에 대한 다양한 이해가 존재하는 것처럼, 인간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해도 다양하다. 그리고 이것은 시간·공간의 차이(시대·역사와 지역문화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관점과 기준의 차이(세계관, 이데올로기 등의 차이) 때문이다.

특히 서구 고대 그리스이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미지도 끊임없이 변화를 겪어 왔는데, 장영란은 이에 대해서 고대 그리스 여신상은 구석기나 신석기의 여신상처럼 신체 비율을 지나치게 대비되도록 하거나 신체의 특정부분을 두드러지게 강조하지 않았다고 언급한다.[11]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학적 비율

에 의해 신체적으로 구성되며 균형미와 조화미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 겉옷을 걸치거나 신체의 실루엣이 드러나는 겉옷으로 변화되어 가다가 헬레니즘 시기에는 겉옷도 벗겨내면서 초월적 특성이 관능적 특성으로 강화되어 간다고 말한다.[11] 그리고 이어서 그는 이런 여성에 대한 이미지가 르네상스 시대에는 성모 마리아상, 그리스 여신상, 일반 여신상을 통해서 나타나며, 이후 현대 대중매체에 나타나는 여성의 신체는 양성적 이미지가 부각되며 성형미인과 몸짱 등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언급한다.[11]

이처럼 다양한 인간의 아름다움에 대한 견해 속에서, 사회문화적 영향을 통해서 시대와 지역마다 다르게 평가되어온 ‘외모에 대한 부분’(얼굴, 몸매 등의 신체적인 부분과 패션 등의 문화적인 부분)과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건강한 자아상, 성품, 도덕성)· 폭넓고 탄탄한 세계관 등을 통해서 드러나는 ‘내면적인 부분’,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이웃과 사회에 대한 ‘관계적인 부분’(이웃과 사회 그리고 생태계를 향한 인식· 봉사와 실천 등) 등에 대한 측면에서 인간의 아름다움을 고려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인간에 대한 이해가 대부분 이 3가지 범주 내에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3가지 측면에서의 인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B대학교의 학생들(11개 학부 330명)을 대상으로 2015년 10월 13일 설문조사(전체 문항 52개, 일반 문항 4, 객관식 38개, 주관식 10개)를 실시했는데, 그 가운데 일부를 아래의 <Table 1>로 정리했다.[12]

<Table 1> reactivity to the beauty

Contents	%
Categories of Beauty are internal, external, and relational beauty(aesthetics).	95.5
I think that the beauty of the face or body, fashion is more important than the beauty of the heart	30
B University has a character education. And it is a Christian character education	93.5
Human education of major should include elements of beauty	78.2
At the University of B may contain any training on the subject of truth, good and beauty in the Christian understanding of subjects	83
To cultivate aesthetic toughness of students, B University has created a well of natural beauty in the landscape	96.9
University B is well create artistic beauty (buildings, interiors, etc.)	96.1
The current character education (understanding of Christianity, chapel, etc.) can give a lot of help cultivate students' personality	77.5

위의 <Table 1>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의 95.5%가 인간의 아름다움에는 내면적·외면적·관계적 아름다움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30%의 학생들이 인간의 아름다움을 고려할 때, 마음의 아름다움보다 얼굴이나 몸매, 패션의 아름다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다시 말해, 이것은 70%의 학생들이 마음의 아름다움이 외모의 아름다움보다 더 중요하거나 외모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인간의 아름다움에 대한 B대학교 학생들의 인식은 마음을 통해서 표현되는 내면적 아름다움과 외모와 패션을 통해 표현되는 외면적 아름다움과 친구들과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관계적 아름다움이라는 ‘총체적 개념으로서의 인간의 아름다움 개념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외면적 아름다움보다는 내면적 아름다움이 더 우선적임을 알 수가 있다.

3.3 캠퍼스 환경의 아름다움

대학 캠퍼스는 교육·연구·업무·휴식·주거·문화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행위가 일어나는 장소이기에,[13] 캠퍼스는 대학이 지니고 있는 물리적 환경·경제성·현황분석·미래비전·특성화·경쟁력 확충 등을 고려해서 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캠퍼스가 명확한 목적과 계획을 통해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캠퍼스의 시설환경과 구성원인 교수와 직원들, 그리고 캠퍼스에서 실시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캠퍼스의 설립이념과 목적, 계획에 적합하여야만 하고, 캠퍼스의 아름다움도 이런 목적과 계획에 적합한 아름다움이 되어야만 한다.

이런 의미에서 캠퍼스의 아름다움을 고려할 때, 첫째로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이 캠퍼스의 시설환경(물리적 환경)의 아름다움이다. 특히 시설환경은 건물, 외부환경, 사용자 동선 등인데, 그 가운데 건물은 교육시설기본(강의실, 실습실, 연구실, 행정실 등), 교육지원시설(본부, 도서관, 학생회관, 체육관, 강당 등), 연구시설(대학원, 연구소 등), 부속시설(기숙사, 교수아파트, 학군단, 박물관, 학생생활관 등) 등을 포함하고, 외부환경은 캠퍼스 전체 지형이나 주변 자연환경(호수, 산, 강 등)이나 학교의 시설 녹지(운동장, 광장, 주차장 등)나 자연녹지(휴식공간과 녹지)를 포함하며, 동선은 정문이나 후문 등을 포함하는 진입부분과 출입부에서 학교 주요시설까지의 중심축과 외부지역과 경계 등을 포함한다.[14]

이런 캠퍼스 시설환경에 대해서, <Table 2>에 나타나

듯이 2015년 10월 13일 B대학교 학생들 3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은 B대학이 자연의 아름다움(산, 나무, 조경 등)을 잘 살린다는 질문에 83.6%의 긍정적인 답변을 했으며, 건물과 시설인테리어 등의 예술적 아름다움을 잘 살린다는 질문에도 77.6%의 긍정적 답변을 했다.[12] 이런 측면은 학생들의 대다수가 학교의 시설환경의 미적 측면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2> reactivity to B university environment

Contents	%
B university embodies the beauty of art (buildings, interiors etc) well	77.6
B university is a well implemented beauty (such as mountains landscape, wood) in harmony with nature	83.6
In the B university, which is most beautiful facilities, environment, roads, streets, place?	Positive answer

특히 오늘날 대학환경이 대학의 차별화된 정체성(identity)과 이미지 마케팅을 중요시하는 시대이고 소비자 중심의 시대이기 되었기 때문에, 대학 내부적으로는 대학의 이념과 목표를 확립하고 구성원들의 생각을 통합하며, 대학 외부적으로는 대학의 명확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인식시키고 학교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합리적 대학 경영을 확립하는 목적을 잘 나타내는 ‘대학 브랜드화’와 ‘대학 정체성’이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교육 수용자인 학생들의 입장에서 살펴볼 때, 학생들은 교육시설·지원시설·동선 등보다는 외부환경(녹지조성·산책로·학교상징물)과 휴식시설과 실내 편의시설 등에 만족도가 높다는 점도 잘 고려해야 한다.[14] 특히 이런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생들의 캠퍼스에 대한 자긍심과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점도 깊이 생각해야 한다.[15]

두 번째로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이 ‘구성원의 아름다움’인데, 이는 구성원인 교수와 직원들의 인성과 역량과 관련된 부분들이다. 먼저 교수는 대학 캠퍼스에서 연구·봉사(상담 등)·강의 등을 수행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수행할 때, 교수 개인의 인간적 아름다움(외면, 내면, 관계적 아름다움)을 통해 나타나는 기능적이고 역량적인 부분이 학생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구성원들이 캠퍼스 설립이념·목적·계획을 잘 이해하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구성원의 아름다움이 캠퍼스의 아름다움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어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직원들의 행정 서비스에 있어서의 아름다움’이다. 특히 오늘날의 대학생들이

감성 중심의 공감각적 세대이기 때문에, 이성중심의 행정도 필요하지만 감성중심의 접근이 더욱 요청된다. 그래서 제기되는 것이 ‘감성 행정’, ‘섬김과 나눔의 리더십’, 기계적 행정이 아닌 ‘행정 인간화’, ‘행정의 아름다움’ 등이다.[16] 그래서 양적·물적 가치를 충족시키는 것 중심에서 질적·문화적·미적 가치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기계적 행정의 발상에서 개인의 감성·정서·존재감을 더 소중히 여겨주는 인간적인 행정과 감성 행정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이런 행정을 통해서 인간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대학 프로그램의 아름다움’이다. 특히 대학에서 실시되는 프로그램들은 교양(인성교육)과 전공에 따른 주제와 내용별로, 강의와 발표와 토론 등의 교육방법론별로, 학생 취업·교육부 요청에 따른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별로, 그 외의 분류별로 다양하다. 그런데 대학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된 학생들의 인성과 전공별 역량을 통해서 대학 프로그램의 결과가 나타난다. 다시 말해 이러한 프로그램 과정을 겪은 학생들의 인성과 전공역량이 인간의 아름다움(내면, 외면, 관계적 아름다움)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과연 아름다운가하는 점이 대학 프로그램 성패의 관건이라는 말이다.

이처럼 캠퍼스의 시설환경·구성원·프로그램의 아름다움이 대학의 설립이념·목적·계획에 적합하게 이뤄져서 학생들이 3부분의 총체적 아름다움(내면, 외면, 관계)을 지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살펴본 인간의 아름다움과 캠퍼스의 아름다움을 중심으로, B대학생들의 아름다움 인식과 융합교육의 관련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4. B대학생들의 아름다움 인식과 융합교육의 관련성

4.1 아름다움 개념에 대한 융합교육의 관련성

오늘날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인 ‘문예미학·콘텐츠키학’, ‘법미학’, ‘정보미학·디지털미학’, ‘문학과 철학의 대화’, ‘전쟁과 사회’, ‘집(건축)과 인간’, ‘진로지도 및 자기관’, ‘정보 문화학’, ‘기술 경영’, ‘융합종합설계’, ‘특허 교육’ 등의 단어들이 보여주는 것이 ‘융합(convergence)’이다. 그리고 이러한 융합은 21C에 적합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날 특정 전문가의 시각

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변화를 해결해줄 융합적 지식과 능력의 요구로 인해서 등장했다.[17]

이러한 융합에 대해서, 신동희는 앞으로는 인간의 감정에 바탕을 둔 융합이 세상을 지배할 것을 말했다.[18] 다시 말해 디지털 정보시대에 있어서 인간의 공감각(시각, 청각 등)이 중심이 되는 문화와 삶이 형성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공감각을 통해서 형성되는 아름다움의 개념이 중요하게 다뤄져야만 하는 것이다. 특히 문화의 시대인 오늘날 수많은 대중매체·디지털매체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시각중심의 이미지이기에, 지식과 학문의 융합에서 아름다움 개념이 중요하게 자리 잡는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대학에서 융합교육을 다룰 때, 필수적으로 아름다움 개념이 포함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4.2 인간의 아름다움, 인성교육과 미학의 융합교육의 관련성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간의 아름다움은 외면적 아름다움(외모·몸매·패션 등), 내면적 아름다움(건강한 자아상·성품·도덕성·세계관 등), 관계적 아름다움(이웃과 사회 그리고 생태계를 향한 인식·봉사와 실천 등)의 측면을 지닌다. 그리고 이런 통합적인 인간이해에서 나온 3가지 아름다움이해는 진(眞, Truth)·선(善, Goodness)·미(美, Beauty) 개념이 상대화되고 개체화되고 파편화된 오늘날의 포스트모던시대에도 소중히 여겨지며, 21C에 적합한 융합인재에게 요청되는 인성교육의 목적·목표·방향성과 이 시대에 적절한 교육방법(공감각이 중요한 감성세대를 위한 미학적 방법론)을 제시해 주기도 한다.

이런 통합적 인간이해를 교육하기 위해서, 기독교 대학인 B대학에서는 인성교육을 위한 과정으로 8학기 동안 8과목의 기독교인성교과와 대학예배를 기독교 인성교육과정으로 두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독교인성교육과목을 살펴보면, 1학기에는 『애덤 앤 이브』라는 인간론을 다루고, 2학기에는 『기독교 탐사』, 3학기 『구약성경의 이해』, 4학기 『신약성경의 이해』, 5학기 『기독교 세계관』, 6학기 『기독교 윤리』, 7학기 『직업과 비전』, 8학기 『기독교 역사인물』을 다룬다. 그리고 대학예배는 학부별로 12개 채플이 있으며, 영어채플·문화채플·전공별 예배 등이 존재한다. 물론 이러한 채플을 통해서 공감각을 중시하는 문화세대인 학생들에게 접근할 때, 다양한 영상·가수·드라마·다양한 예식의 참

여 등을 통해서, 3가지 측면에서의 인간의 아름다움을 형성하기 위해서 아름다움의 측면과 인성교육의 융합을 추구한다. 게다가 이런 채플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매학기에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피드백을 다음 학기에 반영한다.

특히 2016년 1학기 어문학부 채플에서는 아름다움과 관련된 ‘상상력(imagination)’, ‘시(노래)’, ‘이야기’, ‘드라마’ 등의 내용을 주제로 어문학부(국어국문학 전공·영어학 전공·일본어학 전공·중국어학 전공·러시아어학 전공)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접근함으로써, 인성교육과 아름다움의 융합적 측면을 고려해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어서 8과목의 기독교인성교육 교과를 통해서, 올바른 자아상·성품·가족관·윤리관·생명관 등을 확립하고, 수업진행 방법(강의·조별 발표·야외수업·학교 상징물 견학 등)을 통해서 3가지 인간의 아름다움을 포함하는 기독교 인성을 함양시킨다. <Table 3>에 나타나듯이, 이런 B대학의 학생들 33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현재의 인성교육(채플, 기독교의 이해 8과목 등)이 학생들의 인성함양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통이상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77.5%인 것을 볼 때,[12] 융합적 측면의 인성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임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8과목의 기독교의 이해에도 아름다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면 좋겠다고 생각한 학생들의 설문의 응답이 보통이상에 대한 부분이 83%인데, 이러한 것도 학생들이 인성과 아름다움의 관련성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임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측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인성교육과 미학교육이 융합적으로 교육되어야함과 깊은 관련성을 지님을 알 수가 있다.

<Table 3> character education and beauty awareness

Contents	%
B university is conducting a christian character education	93.5
Character education should include elements of beauty in the majors	78.2
Human education of B university is based on an understanding of the truth, as a basis of the Bible	96.3
As well as good and truth, if possible, the inclusion is good for training of beauty	83

4.3 대학 환경의 아름다움, 전공교육과 미학의 융합교육의 관련성

앞에서 다룬 것처럼, 대학 캠퍼스는 캠퍼스의 시설화

경·구성원(교수와 직원)·활용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3부분을 통해서 교육대상자인 학생들이 3범주의 인간의 아름다움(외면적 미·내면적 미·관계적 미)을 형성하게 된다. 특히 전공분야의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사회 속에서 자신의 전공역량을 발휘함으로써 자신의 아름다움을 실현시킨다는 측면에서 전공교육이 중요하다. 전공과 관련된 융합은 2010년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가 언급한 “애플이 아이패드 같은 제품들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늘 과학기술과 인문학의 교차점에 서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19]라는 말에 잘 나타나며, 이것이 디자인 예술성(아름다움)이 깊이 가미된 과학기술과 인문학의 융합이다.

그 외에 전공교육과 미학의 관련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예(example)는 ‘정보시각화(information visualization)’인데, 이것은 추상적인 정보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현대인의 삶의 거의 모든 부분에 관여되고 있다. 특히 신문·인터넷·SNS의 그림과 같이, 인간이 접하는 수많은 정보들을 쉽게 이해하도록 만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통계학·전산학·사람과 컴퓨터의 상호작용 연구·컴퓨터 그래픽스·시각 디자인·심리학 등 수많은 학문영역이 관련되어 있기에[20], 융합의 필요성과 관련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다.

또한 이러한 전공교육에 있어서의 융합교육을 실시하는 대학들에 대해서 연구한 이회용외 2인(2014년)은 국내 4년제 대학 총 217개중에서 융합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학교가 165개이고, 63개 대학이 실시하고 있으며, 39개 대학이 융합교육체계 없이 융합과목 중심의 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특히 인문예술 융합교육을 시행하는 곳이 18개 대학이라고 말했다.[17] 그리고 허용주도 대학 융합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언급하면서, 융합교육이 바람직한 인재상이나 융합교육의 의미 규정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으며, 융합교육의 목적과 목표도 상세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고, 3가지 융합 방식(교과목 중심 융합·현장중심 융합·학생중심 융합)에 있어서도 단편적이라고 언급했다.[21]

이런 견지에서 B대학을 볼 때, B대학은 미학과 연계된 인성교육과 전공교육이라는 두 가지 측면 모두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지만, 2015년에 ‘올바른 인성 실천을 위한 기독교세계관에 기초한 美+ 융합인성교육모형

개발’이라는 과제 안에 실천프로그램으로 디자인영상학부 영상애니메이션 전공 교육과정으로 15주의 ‘기독교적 인성과 콘텐츠 제작 융합 워크숍’이라는 과정을 제시하였고, 정보통신학부 전공 교육과정으로 ‘공학설계와 창의 아름다움(공학과 예술 그리고 인문학, 성경 속에 나타난 기술과 아름다움, 아름다운 코드, 아름다운 설계, 감성심미성의 출발 등의 내용)’라는 과정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런 B대학의 학생들 33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Table 3> 나타나듯이 학생들이 전공과목에도 아름다움에 대한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질문에 78.2%가 보통이상의 긍정적 답변을 했는데, 이런 측면을 볼 때 학생들도 전공교육과 미학의 융합적 관련성에 대해서 긍정적임을 알 수가 있다.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전공교육과 미학의 관련성은 중요하고 필요하며 시대적 경향이다. 게다가 이런 융합교육의 중요성과 오늘날 시대적 흐름과 관련해서 볼 때, B대학은 앞으로 더욱 전공별 융합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체계적인 교육을 이뤄나가야 할 것이다.

5. 결론

아름다움은 시대별로 지역마다 문화마다 학자마다 다양하게 해석되어 왔는데, 이러한 아름다움을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해서 본고에서는 인간의 아름다움과 캠퍼스의 아름다움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가운데 인간의 아름다움이 외면적 아름다움과 내면적 아름다움, 그리고 관계적 아름다움으로 나타나며, 캠퍼스의 아름다움은 캠퍼스의 설립이념·목적·계획에 적합한 시설환경과 구성원, 그리고 프로그램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나타남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B대학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를 통해서, 학생들이 3가지 부분(외면·내면·관계)의 인간의 통합적 아름다움이라는 인식을 지니고 있고, 외면적 아름다움보다는 내면적 아름다움이 더 우선적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캠퍼스 시설환경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83.6%와 77.6%의 긍정적 평가를 했음을 알 수가 있다.

특히 대학브랜드화와 대학정체성이 중요한 이 시대에 학생들의 캠퍼스만족도가 높을수록 학교에 대한 자긍심과 신뢰도도 높아짐을 고려해야함을 발견할 수 있다. 게다가 캠퍼스의 아름다움은 구성원들의 아름다움도 중요한데, 교수와 직원들의 대학설립이념·목적·계획에 적

합한 개별인성과 전공역량이 중요함을 알 수 있고, 특히 감성세대에 적합한 감성 교육과 행정이 필요함을 제기했다. 이어서 대학 프로그램도 이를 경험한 학생들의 인성과 전공역량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대학의 총체적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면에 있어서 중요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아름다움 교육은 인성교육과 전공교육의 융합교육과 깊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으며, 지금과 같이 공감각이 중요한 감성세대인 학생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라 할 수 있다.

ACKNOWLEDGMENTS

This research paper is made possible through the project funding of Industry Academia Cooperation Group in Baekseok University.

REFERENCES

- [1] Wladyslaw Tatariewicz, A History of Six Ideas : An Essay in Aesthetics, pp. 155-187, 1999.
- [2] Eun-Jung Kim, Sang-Jun Park,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 beauty concept", korea beauty society conference, Vol. 1, pp. 42-45, 2008.
- [3] Young-Duk No, first meeting aesthetics, pp. 22-32, 2015.
- [4] Ju-Young Lee,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and diversity of perception for Korean beauty," pp. 383-385, 2011.
- [5] In-Suk Lee, Yun-Mi Yang, "Relevance of university student's physical, behavioral and psychosocial health",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5, pp. 302-303, 2015.
- [6] Yong-Hee Chang, Kyung-Ja Kim, Jae-Shin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Character Strengths(Humanity), Self-Control, and Altruistic Behavior in the Times of Convergence: The Mediation Effect of Moral Eleva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9, pp. 445-452, 2015.
- [7] Su-Kyung Hong, Min-Kyung Kim, "Female college student's interests in make-up according to recognition types of them",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3, No. 1, pp. 525-533, 2015.
- [8] Ji-Won Kim, "Efficacy Analysis of Developed Course for Promoting Character Education with Women's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11, pp. 481-491, 2015.
- [9] Johannes Hirschberger, Geschichte Der Philosophie, p. 150, 2004.
- [10] Mario Beauregard, Denyse O'Leary, The Spiritual Brain: A Neuroscientist's Case for the Existence of the Soul, pp. 6-13, 2010.
- [11] Yun-Ran Jang, "Body aesthetics and ideology as transcendence and sensuality", Philosophy Journal, Vol. 79, pp. 245-258, 2015.
- [12] Jin-Cheul Hong, Jin-Kun Hong, Kang-Mu Lee, development on convergence personality education model of the beauty based on the perspective of the christian world view for building of upright character, pp. 106-113, 2015.
- [13] Hun Park, "the study on plan characteristics of the university campus master plan", the Journal of plan design, Vol. 27, p. 227, 2011.
- [14] Ji-Woo Kim, Mi-Koung Ha, "Satisfaction evaluation study on identity characteristics of university environment", the Journal of plan design, Vol. 30, pp. 5-12, 2014.
- [15] Ji-Woo Kim, Mi-Koung Ha, "Study on the Impact for the campus loyalty of campus brand identity", the Journal of brand design, Vol. 30, p. 196, 2014.
- [16] Ho-Jun Cheo, "The realization of the emotional community", citizen humanities, Vol. 19, p. 107, 2010.
- [17] Heo-Yong Lee, A-Young Youn, Jae-Duk Kim, "Actual research on humanities and arts convergence education of korean university",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Study, Vol. 44, pp. 185-195, 2014.
- [18] Dong-Hi Sin, Smart Convergence and Consilience3.0. Seoul. Sungkyunkwan University Press, p. 145, 2011.
- [19] Walter Isaacson, Steve Jobs, p. 778, 2011.
- [20] Julie Steele, Noah Illinsky, Beautiful Visualization, pp. xi-xii, 2012.
- [21] Young-Ju Hu, "Research on problem and improvement

method of university convergence education” Vol.
11, pp. 55-62, 2013.

저자소개

홍진철(HONG, JIN CHEUL) [정회원]



- 1996년 2월 :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공학사)
- 2011년 2월 : 장로회신학대학교 일반대학원 신학과 (신학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백석대학교 기독교학부 교수

<관심분야> : 미학, 융합교육